

조직원 200명 역대 최대 보이스피싱 적발

은행 사칭 “신용평점 올려라” 유인 수백명에 34억 가로채 해외에 콜센터 두고 수시 이동…상담·모집·인출 역할 분담 수법 치밀해 알면서도 속아…광주지검, 총책 등 55명 적발

“아, 아쉽습니다. 고객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은행 직원을 사칭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직원만 2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3)씨 등 55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32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2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이 범행은 치밀했다. 조직의 핵심인 콜센터는 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두고 수시로 옮겨다녔다.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담 콜센터팀·계좌모집 콜센터팀·국내 현금인출팀 등 계통과 역할도 확실히 구분했다.

범행은 1·2차 단계로 나뉘어 이뤄졌다. 멘트가 쉬운 1차 전화(대출 의사와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는 신규 상담원이, 좀 더 어려운 2차 전화(입금)는 팀장급이나 경력 상담원이 맡았다.

먼저 신규 상담원은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 △△△ 대리다. 고객께서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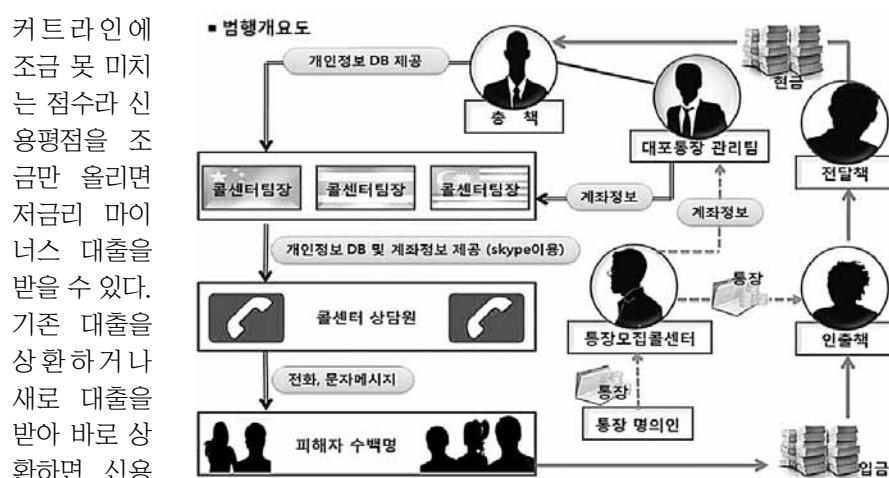
문자메시지를 받고 1번을 눌러 저희 쪽에 접수가 돼 연락드렸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대출을 원하는가”라며 대출 여사를 확인했다. 이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조회 사이트에 조회를 해야 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해달라. 지금 통화 중인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말로 상대를 현혹했다.

이후 피해자가 알려준 인증번호로 신용 정보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과거 대출 내역·상환 내역·신용 상태 등을 조회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뒤 2단계 범행이 시작됐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 이자를 알려주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해주세요. 다음날 은행 본점이나 지점 심사팀에서 심사 전화가 갈 것이다. 전화를 잘 받아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신청한 마이너스 대출 심사 견으로 연락드렸다. 확인 결과 금융거래 미비 및 당행 거래 실적 미비로 확인됐다. 상환능력 평가 기준과 위험부담율로 인해 조건부 승인 결과 나왔다면”며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건넸다.

이후 원래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심사전화 잘 받았나. 고객의 신용평점을



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그리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실제 대출을 받게 한 뒤 “바로 연락주면 당일 상환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시겠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30분이 지나면 납부가 안 될 수 있으니 늦어질 경우 다시 연락 부탁한다”며 즉시 입금을 압박하기도 했다.

상담원 3~4명이 은행 대출 담당·심사 담당 직원·다른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 피해자에게 변갈아 가면서 전화를 한 것이다.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본사 대표번호와 유사한 발신번호가 표시되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정상적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돈을 입금받으면 즉시 연락을 끊고, 경

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범행을 반복하기 위해 금융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상환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팩스로 보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치밀한 수법을 통해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보름 이상 범행을 계속하면서 1억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2012년부터 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규모의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했으며, 조직원 수만도 약 200명에 이르는 기업형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빈 부장검사는 “올해 대검에서 새로 구축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정보(피해자·범행계좌·범행사용전화 등) 데이터베이스(DB) 검색을 활용, 조직원들의 주기범행과 조직의 전모를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사드 반대 평화버스 출발

오늘 광주서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평화버스’가 광주를 출발, 경북 성주로 향한다.

20일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 한국 배치 저지 광주행동’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30분에 광주시청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평화버스’가 경북 성주로 떠난다.

평화버스는 같은 날 오후 1시 성주군청에서 집결 및 출정식을 갖고 성주·김천 농기계 가두사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후 7시30분에는 김천역에서 개최되는 쇼불집회에 참석한 뒤 자정께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광주행동(010-5542-3494)으로 하면 된다.

지난 17일 8차 광주시 국 촛불대회에 참석한 성주사드반대투쟁위원회 박성필씨는 “80년 5월 목숨을 걸며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 시민과 우리가 가진 것은 끈기밖에 없다”며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촛불을 지킨다면 이 땅에 사드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운행 시작…하루 30회 왕복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가 19일 광주역에서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셔틀열차는 하루 30회 왕복 운행되며 1회 운행에 16분이 걸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커피숍 임대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 / 후문 2분

모아 A.P.T 후문 / 대단위 아파트

◆ 13평 / 코너 자리

시설 완비 / 즉시입주 가능 / 단골 손님 다량 보유

★ 보 2천 월 60만

첨단 1층 식당 임대(120평)

첨단 메가박스 / 첨단산업단지 1분 / 삼성전자 정문 앞

◆ 한우식당 /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 즉시 입주 가능

★ 보 1억 - 월 300만

010-7384-7800

상무지구 오피상가 매매 6층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웅 2천4백만)

▶ 시세 9천만
매매 6천9백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9평) 운천역 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웅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웅 2천4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웅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5평) 12층 ~전망 좋은,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9평) 숙명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6천 (웅 5천)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토 56평 건 75평

1층 (식당), 2층 (주택)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지역)

총 룸 30개 (밀방수익 1천만 예상)

▶ 감정가 99억5천 → 최저가 6억6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1, 5가 억 2천여평

4차선도로 접 / 2층 상가건물

▶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강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나주시 석현동 (2층 식당)

토지 55평, 건 239평

동신대학교 3분 거리

식당 최고 위치 / 주차완비

▶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9천

첨단지구 8층상가건물 매매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용 자 27억

※ 본사건물
물류센타
연구시설
기 숙 사 적합

010-7384-7800
010-6670-9800

010-6670-9800

한센인 보상금 4억 횡령 호화생활

소록도병원 전 원생자치회장 구속

한센인들에게 지급된 피해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해 호화생활을 한 소록도 전원생자치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고흥경찰은 19일 일제강점기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4억3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국립 소록도병원 전 원생자치회장 김모(64)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원생자치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중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3명의 보상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센인 피해자 7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절반인 3억2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망한 3명의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고용금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작증기자 gjju@

서부경찰, 범죄 저지르지 않은 10대 여중생 송치 까닭은

“범죄 유혹 빠지지 않도록 사전 보호”

경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해 범죄 전력자들과 어울리며 범죄자 또는 범죄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10대 여중생을 경찰에 실종신고만 5차례 접수됐으며, 소재를 파악해 조사해보니 성범죄 및 폭력전파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칫 범죄자 또는 범죄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보였

다”면서 “A양의 사례처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경찰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소년법(제4조)에 따른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청소년이 비행행위만으로 경찰이 기입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당시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면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제도였다. 경찰은 그러나 범원 측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범죄자 내지 범죄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선에서 제도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개월된 아들 태우려고…유모차 훔친 외국인 유학생